

# 집중호우 대비 안전관리 철저

## 진안군, 군민 안전 위해 부서별 재해 취약지역·시설물 점검 등 총력 대응

진안군은 9일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됨에 따라 집중호우에 대비한 긴급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군 집중호우 등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등 철저한 사전 대비를 하고 있다. 먼저 군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부서별로 재해 취약지역 및 시설

물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호우 특보 발효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후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협업기능반별 재난안전에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으며 재난문자(CBS), 옥외전광판, 마을방송 등을 활용하여 기상 및 주의사항을 주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다. 또한 도로변 빗물받이, 배수로의 낙엽, 담배꽂초 등 이물질 사전제거 및

점검·정비 실시 및 하천점용 공사장, 재해복구사업장 등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 배수시설 정비, 응급차재 정비 전진배치, 유사시 신속 주민대피 등 2차피해 방지조치 등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름철 자연 재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물속 생물 탐사대' 운영

## 반디랜드 인근 남대천서 채집·교육활동 진행

무주군은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맞아 반디랜드에서 "물속 생물 탐사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7월에는 19일과 28일, 8월에는 9일과 16일 총 4회(매회 13:30~16:30)에 걸쳐 진행하며 탐사 대원은 전화접수(전화 063-320-5667)를 받아 회당 20명씩 선착순으로 선정(7세 이상 체험 가능,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행 필요)한다. "물속 생물 탐사대"는 정정 무주의 자연에 살고 있는 어류와 수중생물에 대해 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정정 무주의 남대천 수중 생태계"를 주제로 채집과 교육활동이 함께 진행된다. 실제로 반디랜드 인근 남대천에서 수족관 어류사육사와 함께 수중생물을 채집하며 '갈겨니', '돌고기', '격지' 등의 토종어류와 수생곤충, 양서류의 특징과 생활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감돌고기' 등 보호종에 대한 현장 교육도 병행(기상에 따라 체험 내용은 취소되거나 변동 가능)한다. 이날 탐사 체험을 토대로 남대천에서 서식하는 민물고기 '스터커 북'과 '카드 북'도 제작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청 시설체육운영과 반디휴양팀 김현영 팀장은 "자연특별시 무주를 찾는 분들에게는 다채로운 체험 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아이들에게는 내 고장 자연환경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여름방학과 휴가철에 진행이 되는 만큼 반디랜드, 그리고 물속 생물 탐사대와 함께 즐겁고 알차게 보내시길 좋겠다"고 전했다. 무주군 설천면에 위치한 반디랜드는



곤충박물관과 생태온실, 수족관, 천문과학관, 사계절 썰매장, 물놀이장 등을 비롯해 청소년 캠프장과 통나무집, 청소년수련원 등의 숙박시설까지 두루 갖춘 체험형 관광시설로, 곤충박물관에는 천연기념물이자 환경지표 곤충인 반딧불이를 비롯해 국내·외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곤충 1만여 종이 실물로 전시되고 있으며 2백여 종의 식물을 볼 수 있는 생태 온실과 덕유산 최상류부터 금강하구까지 서식하는 다양한 물고기와 수달, 열대어 등 80여 종을 함께 볼 수 있는 수족관 시설도 조성돼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농어촌 삶의 질 지수 평가 '최상위'

진안군(군수 전춘성(사직))은 9일 농어촌 삶의 질 환경·안전 분야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대통령 농어촌 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 이하 농어업위)가 청양군청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139개 농어촌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내용을 발표한 결과이다. 특히 군은 종합지수 평가에서도 전국 농어촌 지역 중 15위를 차지해 최

상위 지역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농어촌 삶의 질 지수"는 5년마다 수립되는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기본계획과 연계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변화를 평가하고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며 △경제 △보건 △복지 △문화 △공동체 △환경 △안전 △지역회복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돼 재정지립도, 사회활동 참여율, 지역안전도 등 20개 세부 지표에 따라 평가된다. 진안군이 전국 1위로 발표된 '환경 안전 영역'은 △빈집률, △지역안전도, △하수도 보급률,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처리량을 지표로 분석해 평가한 것으로 수려한 자연 환경과 더불어

어 안전한 환경이 보장된 도시임이 입증됐다. 전춘성 군수는 지난 5일 청양군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특별주제 발표자로 나서 환경·안전 영역에서 진안군의 우수한 정책이 이룬 성과들을 강조하며 △빈집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세컨하우스2 프로그램) △빈집 분야 4년 연속 1등급 유지 등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전춘성 군수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진안군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여 생태건강치유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며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270번째 경로당이 설천면 에코크로아파트 내에 9일 문을 열었다.

# 무주군, 270번째 경로당 개소

## 설천면 에코크로아파트 내 주방·냉난방시설 등 갖춰

무주군 경로당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뒷받침하는 유용한 생활터로 자리 잡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현재 6개 읍면 지역에 269개 경로당이 운영 중이며 9일에는 270번째 경로당이 설천면 에코크로아파트 내에 문을 열었다. 에코크로아파트의 규모는 75㎡로 방(3개)과 주방, 냉·난방시설, 장애인편의 시설(문턱 제거, 주 출입구 경사로, 번기 자동 물 내림) 등을 두루 갖췄다. 이용 지역 내 어르신은 총 19명,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은 4명으로 경로당이 공동식사는 물론, 무더위 및 추위 심더라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은 지역 내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경로당 개선 사업을 추진 중으로 올해는 전체 경로당에 공과외파이를 설치하는 한편, 비대면 여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

경로당 사업도 병행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또 경로당별로 운영비와 동절기 난방비, 하절기 전기요금 등 430만 원(총 1억 1천 6백여 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공동 취식을 위한 정부양곡도 8포대씩(총 2,160포대)을 지원하고 있다.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이은주 과장은 "건강 100세를 위해서는 잘 드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고, 주변과 어울리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경로당이 그 터전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초고령사회인 무주군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고 어르신들의 바람과 만족도를 고려한 경로당 시설 확충·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무주군의 65세 이상 어르신 수는 총 8,888명으로 6개 읍면 270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 수는 6,820명에 달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접수

장수군은 한우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오는 8월 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중, 2023년도에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 손해를 입은 한우 사육 농가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관련 증명서류(2023년 생산·판매 실적 등) 및 신청서를 방방제출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 4450원으로 예상되며, 최종 지급여부와 지원 규모는 서면·현장 조사, 심사위원회심사 등을 거쳐 11월에 결정하고, 12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장수군은 농업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증명서류의 상당 부분을 지역 농·축협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간소화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소식통

## 장수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장수군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이전·말소·폐차한 경우 △중합소득세 등 국제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된 경우 △납세자가 세액을 착오로 신고·납부하는 등의 경우 주로 발생한다. 장수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1,261건 34백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현년도 환급금은 25백만원, 과년도 환급금은 9백만원으로 확인됐다. 군은 일제정리 기간 중 환급대상자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액이 있는 모든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 홈페이지, 안내 현수막 게재, 전화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납금 환급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군청 방문없이 장수군청 재무과로 전화신청(063-350-2236)을 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환급금 간단 조회'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조회 및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진로진학컨설팅 여름방학특강 운영

진안군은 오는 24일~26일까지 군청 강당에서 '2024 진로진학컨설팅 여름방학특강 진담캠프'를 운영한다. 진·담 캠프로 명명된 이번 프로그램은 진안의 마음이 담긴 진로진학컨설팅 프로그램이라는 뜻으로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유전자지문 적성 검사 결과 분석으로 자기 이해를 돕고, 시기별 맞춤형 학습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캠프는 요일별로 연령대에 맞춰 진행되며 24일(초등 5~6학년/20명), 25일(중등 1~3학년/30명), 26일(고등 1~2학년/20명) 등이다. 캠프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링크 접속(<http://naver.me/xlv39f9g>) 등을 통해 오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모집이 완료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